



## 그래서 우리는, 연극에서 인생을 배운다

###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배우 박현미 & 배우 장준호

우리에게 신념이란 것이 있는가. 혹은 어디까지가 지켜야 할 도덕관념인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과 타협해도 되는 것 사이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며, 그 행동을 다른 이들에게 설득시킬 수는 있는 것일까. 그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도대체 이 사회는 어떤 힘과 원리에 의해 굴러가며, 과연 우리는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 한 편의 연극을 보고 이다지도 치열한 고민을 하게 된 것은 참으로 오랜만인 듯싶다. 러시아 극작가 류드밀라 라주몐스카야의 희곡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의 세계는 이 시대의 사회상을 소름까지도 북 치절하게 반영한다. 사건은 졸업을 앞 둔 학생들이 자신의 시험 답안지를 수정하기 위해 수학 선생님을 찾아가 답안지가 들어있는 인편 금고의 열쇠를 요구하면서 시작된다. 기실 특별한 것 하나 없는 간결한 플롯이지만 등장인물 하나 하나는 교묘하게 의표를 찌르며 상황을 극한으로 몰고 가, 공연을 보는 내내 숨이 막히도록 가슴이 먹먹해진다.

(현: 박현미, 준: 장준호, 술: 김슬기 기자)

###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날 밤 공연이 끝난 후 관객과의 대화가 있었다기에,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 전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가볍게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두 배우 모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폭포수처럼 말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보는 것만으로 머릿속이 험글어져 생각이 꼬리를 물게 만드는 이 공연을, 그 오랜 시간 머리로 가슴으로 온 몸으로 파고들었을 그들 이야기에 잠자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준: 반로자로서 과연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고 싶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사실 살면서 부조리한 부분들도 많이 접하고 그러면서 도덕이란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최소한의 도덕, 그마저도 지키기 힘든 세상이나까,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범위 안에서 서로가 더불어 가면서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결국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고요. 제 생각엔, 가진 자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서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반로자 역할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물론 애는 나중에 다 버리고 가 버리지만, 처음에 애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엔 많은 부분 진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 근데, 이 작품은 하면 할수록 좋아요. 관객과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 면도 많고요. 저는 사실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누군가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이견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진부하다고 얘기하고, 편견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가슴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 이견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면 황당하고, 분노하고, 슬픈 수밖에요. 근데 너무나 똑똑한 학생들이 그렇게 나오나, 선생 입장에서는 애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끝까지, 비록 제 인생의 신념은 무너졌는지언정, 그리고 사실 정말로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관객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버리고 버티다, 지금 몇 시쯤 됐나, 라고 물어보는 그 모습, 사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침까지 잠 잡아둔다면, 비록 제 신념은 무너졌을지라도 그게 이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술: 마지막에 애들이 열쇠를 안 가지고 갔을 때, 그레 여전히 희망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관객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그 결말 자체가 조금은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현: 그래도 애들이 변화가 됐잖아요. 선생님도 끝내네 그렇게 버텨오면서, 그 과정과 시간들을 거쳐 결국엔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 그렇게 애들이 커나가는 거잖아요. 그 상처를 안고도, 다음 나뉠대로 잘 살아나갈 것 같아요.

준: 근데 어쨌든 중간에 타협하고 나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그렇게 버려두고 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희망이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무언가 얻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혼들리면서 거기까지 가지도 않잖아요. 거기까지 간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치열하게 아픔을 겪고 나면 본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열쇠를 가지고 나갔다면, 반로자야말로, 어, 그레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살텐데, 이 아이도 거기서 또 상처를 받게든요, 너희들 다 쓰레 가야, 하면서 나가지만, 과연 그가 끝까지 웃을까, 라는 지점에 대해서도 관객들이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현: 선생님은 마지막에, 라가 애들이 열쇠 안 가져갔어요, 라고 말할 때, 무대 뒤에 있는데, 그 대사를 일부러 안 들으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그 대사를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컷콘플 할 때 울 것 같아서, 굉장히 확장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풀려오거든요.

### 「지금, 현실을 돌아보라」

이 작품이 발표되었던 것은 페레스트로이카 직전의 1980년 구소련. 갑작스레 몰려든 새로운 가치와 사상은 구시대와 견고한 세계관을 가져 없이 흔들기 시작한다. 믿음은 배신당한 체 혼란이 지배하는 시대. 그 갑갑한 현실의 뽀바구니에서 한 신에 작가의 작품이 일대 폭풍을 예고한다. 그러나 그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변한 것이 없는 이 세상은 어떤 비극일까.

술: 이 희곡이 80년에 씌어지고, 그 이후 잠깐 금지되었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연되고 있는데 지금의 우리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이 희곡은 어떤 의미일까요?

준: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였다면 이 희곡은 똑같이 금지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러시아 얘기를 하고, 러시아 사람들 이들을 쓴 뿐이지, 사실 전부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상황에 대해 극렬해지는 것 같아요.

현: 저는 여성 작가들이 좀 많이 봐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넓은 세계에서 희곡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람 얘기도, 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고, 물론 오묘조묘 예쁜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인색이면 관객들이 이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작품을 만났을 때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준: 개인적으로는 이런 작품이 연극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전에 이 작품을 봤었는데, 극장 나서면서, 뭐야 도대체, 확장하면서도 끝나고 났는데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쪽에 관객들을 많이 뺏기면서 다시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워낙 가벼운 쪽으로 많이 치우치기 시작하면서 연극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매체의 특성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을 하면서 이런 작품이야말로, 연극만이 할 수 있는 작품이고, 연극이 가지고 있는 힘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



있던 것 같아요. 좀 긴박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작가들도 이런 얘기를 써줬으면 좋겠어요.

술: 오늘 보니까 학생들과 함께 그 수업의 교수님이 공연을 보고 나오시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많이들 보고 가시나 봐요?

현: 네, 선생님들이 굉장히 공감하고 가세요. 지금도 졸업반 같은 경우에 전화가 온대요. 이번에 이 점수 아니면 자기 졸업 못한다, 이런 압박 비슷한 메일도 오고.

준: 근데 회곡 자체가 참 잘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에게는 자신이 과연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해 주고, 학생들 또한 결론적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반로자를 보면서, 재 참 맞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런 놈은 되지 않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현: 이 좋은 작품을 대학로에서 올리는 것 자체가 옹기라고 생각해요.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들을 하실까 싶은데, 관객이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고 만이죠. 근데, 사실 내용은 간단하거든요, 연석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 연석 하나 가지고 벌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아우르는 내용이나가요. 관객 반응도 의외로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보고 나서 자기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특히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교대 학생들이 보러 와서 남다른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이 아이들의 맘에 거의 박수를 칠 뻔했다! 고 하는데 반해서 만이죠.

준: 저는 개인적으로 엘레나 선생님이 라고 부업에서 얘기할 때, 순간 반로자 표정으로 들리더니 그 얘기가 얼마나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작은 변혁 아니겠어? 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개혁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개혁은 또 다른 반대파를 만들기 때문에, 그 대신

근본적으로 밑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야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연극하는 입장에서 보면, 좋은 공연을 보고 관객들이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또 저희들의 사명감일 수도 있고요.

## 그러니, 살아야 한다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학생들, 기만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열쇠를 쥐버리기만 하면 누구 하나 손해 보는 일도 없고, 일은 간단히 끝난다. 그러나 연극은 끊임없이 질문한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고. 진정 잘 산다는 건 무엇일까, 행복의 잣대는 어떻게 결정될까.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야 한다. 보란 듯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곳 곳하게.

현: 이 선생님이 물론 좀 고지식하죠. 저도 처음에 대본 읽을 때는 애들 말이 너무 맞는 거야. 이게 어떡하니, 너네가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랬었는데, 단지 하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시험 당하면서까지 그런 절대로 옳음을 못한다는 거, 그거 하나로 가짜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라도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거요.

준: 근데 반로자는 오히려 엘레나 선생님이 이런 사람이라서, 그래서 흔들리거든요. 다른 선생님이었다면, 이렇게 시험하러 들어가지도 않죠. 힘의 논리로 가버리면 끝나니까, 그런데 부딪치고 나니까 역시 이 사람은 다르다, 그러나 선생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잔인할 정도로 인간의 원초적인 얘기를 다루는데, 여기서 엘레나 선생님은 학생들을

정말 사람으로 봐야요. 그 상황 속에서도 연석을 안 내어주고 어떻게 든 설득을 시키려고 하고, 단 한 번 폭력도 안 쓰고, 있을 수 없는 선생이라는 생각이 풀 정도로 훌륭한 선생 같아요.

현: 훌륭한 선생님이죠. 물론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정말 이 땅의 많은 선생님들에게 파이팅과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술: 선생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확고한 신념과 타협하기 싫어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준: 근데 연출의 주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절대 학생의 시선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현: 초반에는 애들이 너무 끔찍한 얘기를 하나씩, 정말 힘들었는데, 나중에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외면이 안 되는 거예요.

준: 연젠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당신이 좋은 선생님이려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꾸짖어 주십시오, 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거는, 보기에는 반로자가 나쁜 놈인데, 어떻게 이 인간은 이렇게 진심을 다 이야기할는지, 선전포고를 하잖아요. 코요하게 머리 써서 당신 혼들어 놓을 거야, 라고 하고선 실제로 그렇게 해요. 참 손칙해서 좋은 친구예요.

현: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런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굉장히 성공하고 잘 살 거라는 거죠.

준: 근데 차라리 이런 인간이라면 성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적어도 거짓말은 안하잖아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진정한 리더라면 애들을 다 같이 끌고 나와야 하는 건데, 거기까지 고민해준다면, 물론 방법은 틀렸지만, 그래도 훌륭한 리더감이 아닐까요. 못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동정도 있고.

현: 근데, 그런 좀 웃긴 것 같아. 잘 산다는 게, 행복이라는 게 꼭 경제적으로 부유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자기 잣대로 동정이나 연민의 눈길로 바라보는 건 좀 아닌 거지. 사람은 땀만으로



배우·장준호  
개인적으로는 이런 작품이 연극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진 않아. 저는 본인이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것,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최우선은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본인이 행복하다고 느껴야죠.

준: 물론 같은 생각이예요. 근데 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하나가 더 추가 되더라고요. 책임감. 자기 역할에 대한 책임감, 다음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면, 또 그런 사람들 아름답게 보는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들을 인정해 주면 충분히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데, 네가 그걸 잘 하니까 나도 잘 해야지, 라는 경쟁, 그런데 그 경쟁이 서로 발전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발기 위한 경쟁이 되어 버려서 결국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게 아닐까요.

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 사람들,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이 사회가 정말 문제인 게 아닐까 하고요.



배우·박현미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이 사회가 정말 문제인 게 아닐까요

분혹의 두 배우는(동갑내기 두 배우가 선생과 제자 역할로 맞추어낸 호흡이 놀랍다) 여전히 연극 무대에서 배우는 것이 많으며, 이 공연을 거쳐 가슴에 품고 갈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한다. 진실 혹은 손칙함이란 무엇인지, 그 치열하게 고민했던 흔적을 가슴 속에 묻은 채 그들은 또 새로운 작품을 향해 정진할 것이다. 아마도 그 소중한 기억들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희미해지지 않으리라. 마지막으로 지면의 한계 상 작품 안에서 함께 고생하며 서로의 긴장감이 되어 주었던 화사역의 서재균, 비화 역의 김영조, 라역의 박수민 세 배우와 또 다른 이야기들에 아쉬움과 미안한 마음을 담아 보낸다. 그러나 그들 모두의 이야기는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을 지켜봐 준 관객들과 더불어 꺼지지 않고 이어져 나갈 것임을 믿는다.

글: 김솔기 기자 (soolsogj@naver.com)  
사진: 최은선 (리얼기자, susara77@hotmail.com)